

이번 FOCUS는 김장용 굴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해 전국 8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가구의 김장용 굴 수요를 분석한 결과이다.

8대 도시 가구의 김장용 알굴 수요, 11~12월 국내 굴 수요량의 17%

- 농림부에서 발표한 “표준가격 김장 소모량”과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장 수요 전망”에 따르면, 2007년 4인 가구 기준 김장 배추 소비량은 21.4포기이며 알굴 사용량은 0.64kg이다.
- 이를 기준으로 2007년 전국 8대 도시 가구의 김장용 알굴 사용량을 추정하면 1,624톤이다. 이는 최근 3년간 11~12월의 국내시장 평균 소비량의 17.2%에 해당한다.

〈전국 8대 도시 김장용 굴 소비 추정량〉

(단위 : 톤, %)

구 분	국내 소비량 ¹⁾	8대 도시 가구의 김장용 알굴 수요량		
		김장용 소비량	비중 ²⁾	전년 대비
2004년	8,646	1,682	19.5	-
2005년	9,410	1,776	18.9	5.6
2006년	8,784	1,875	21.3	5.6
2007년	9,432 ³⁾	1,624	17.2	-13.4

주: 1) 국내 소비량 = 국내생산량(수출 10%) - 수출량 + 수입량, 「어업생산통계」 및 「수출입통계」

2) '비중'은 국내 소비량 중 2개월간의 김장용 알굴 소비량의 비중임

3) 2007년 국내 소비량은 2004~2006년의 11, 12월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8대 도시 김장용 굴 수요, 작년 대비 13% 감소

- 김장용 굴 수요는 2004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배추와 무의 가격 강세로 김장을 담그는 세대 수와 세대별 김장량이 감소함에 따라 굴 수요도 13.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김장용 굴 수요 감소는 지속되는 대일 수출 부진과 더불어 굴 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김장용 굴 수요는 더 크게 감소할 듯

- 한편 이번 추정에는 8대 도시 가구의 김장용 굴 수요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 식당용 및 판매용, 8대 도시 이외 지역의 김장용 굴 사용량이 제외되어 있다. 만약 이를 포함한다면 전체 김장용 굴 수요는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집필진

강종호(총괄), 옥영수(생산·가격전망), 박광서(생산), 김수현(가격·수출입·FOCUS), 백은영(일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 등 수산물 전반의 수급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fo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월 굴 출하량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격은 작년보다 낮아

12월 산지가격은 전월 및 작년 동월보다 다소 낮은 수준일 듯

- 11월 굴 출하량은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다량의 폐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철에 접어들어 전월에 비해 128% 증가한 6,224톤으로 추정되었다.
- 경남의 굴 양성상태는 지난달까지 양호한 편이었으나 11월 들어 통영과 고성을 중심으로 다량의 폐사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남 여수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폐사율을 보이고 있다.
- 11월 산지 및 도매가격은 전월에 비해 올랐지만 작년 동월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수출량은 대일 생굴 수출 부진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22% 감소한 1,096톤을 기록했다.
- 12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산지 가격은 내수 및 수출 수요 감소로 전월 및 작년 동월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동향

11월 굴 출하량 대폭 증가한 가운데, 통영과 고성에서 다량의 폐사 발생

양식산 굴은 수하식(垂下式)과 투석식(投石式)으로 생산되나, 투석식은 출하량이 미미하고 시설량 파악이 곤란하여 관측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량의 폐사에도 불구하고 11월 굴 출하량 6,224톤

- 11월 알굴 출하량은 경남과 전남에서 다량의 폐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6,224톤으로 추정되었다.
- 굴의 주요 생산지인 경남의 경우 전월 대비 109.7% 증가한 5,692톤으로 전체 출하량의 91.5%를 차지하였다.
- 한편 전남에서도 여수를 중심으로 굴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476톤이었으며, 충남 등 기타지역에서는 56톤이 출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1월 굴 출하 동향〉

(단위 : 톤)

구분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국	338	2,726	6,224	128.3
경남	335	2,714	5,692	109.7
전남	-	6	476	7,704.4
기타	3	6	56	819.9

주 : 1) 알굴 기준으로 11월은 잠정치임
2)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 11월말 잔여시설량, 전월 대비 18% 감소한 2,040만 연

- 11월 들어 전국적으로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11월말 현재 잔여시설량(수하연 수 기준으로 길이는 지역마다 다름)은 전월에 비해 18.2% 감소한 2,040만 연으로 추정되었다.

〈11월말 굴 시설량(수하연 수) 현황〉

(단위 : 만 연)

구분	수하연 평균 길이(m)	9월말	10월말	11월말	전월 대비(%)
전국	4.0	2,654	2,495	2,040	-18.2
경남	5.1	1,601	1,450	1,154	-20.4
전남	2.6	751	745	621	-16.6
기타	1.4	302	300	265	-11.7

주 : 11월말은 잠정치이며,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다량의 폐사 발생

- 경남의 굴 양성상태는 지난달까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11월 들어 통영과 고성을 중심으로 다량의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영에서는 한산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빈산소수괴* 등의 영향으로 폐사가 발생하였으며, 고성에서도 고성만과 자란만 일대에 폐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전남에서는 여수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폐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도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의 경우 폐사율은 낮은 편이지만 성장과 비만도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전남 완도와 진도, 충남의 양성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빈산소수괴 : 산소 농도가 희박한 물덩어리

〈11월 굴 양성상태〉

	지 역	성장	비만도	폐사	병해	비 고
통영	한산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인평·도산만	○	△	△	△	빈산소수괴 등의 영향으로 소량폐사 발생
	지도·원문만	△	△	×	△	빈산소수괴 등의 영향으로 다량폐사 발생
고성	고성·자란만	○	○	×	○	수하연 저층부를 중심으로 다량폐사 발생
거제	거제만	○	○	×	○	다량폐사 이후 해황안정으로 성장 및 비만도 양호
	진해만	△	△	△	○	대체로 양호하나 저층에 빈산소수괴 형성
남해	강진만	△	○	△	○	성장 및 폐사는 보통이나 비만도는 양호
여수	가막·장수·여수만	×	○	×	○	가막·장수만을 중심으로 대량폐사, 비만도는 양호
고흥	-	×	×	○	○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성장 및 비만도는 매우 부진
완도	-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진도	-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서산·태안	가로림만 등	△	△	○	○	양성상태 양호하나 해적생물 일부 부착

주 : ○는 좋음, △는 보통, ×는 나쁨

〈해황 및 기상예보〉

(기간 : 12월 1일~31일)

■ 12월의 수온전망(국립수산과학원)

- 12월의 해역별 수온분포는 남해 14~20℃, 서해 중남부 해역 13~19℃의 범위를 보이겠으며, 평년에 비해 평년상 또는 1℃ 내외의 고온상을 보이겠다.

■ 12월의 기상전망(기상청)

- 12월 상순은 이동성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중순과 하순에는 대륙고기압의 주기적인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건조한 날이 많아 평년보다 적겠다.

가격동향

11월 산지·도매가격, 예년보다 낮은 수준 지속

11월 산지가격,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

- 11월의 생굴 산지가격은 전월보다 50% 이상 상승하였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산지별 kg당 위판가격은 통영 굴수하식수협이 전월 대비 54.5% 상승한 4,858원, 고성군수협은 85.1% 상승한 5,564원이었다.
- 11월 산지가격이 전월에 비해 크게 상승한 이유는 햇굴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고 김장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하굴 증가, 수출 부진, 김장용 굴 수요 감소 등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월별 생굴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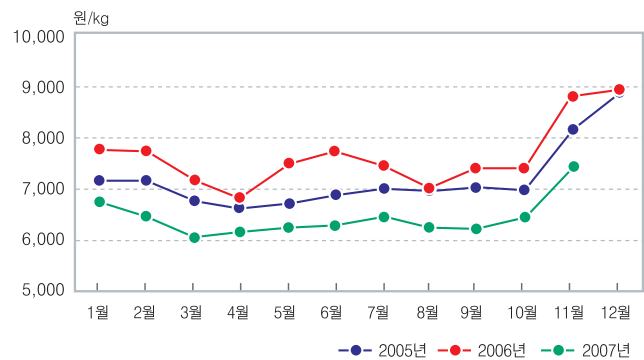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11월	10월	11월		
평 균	6,820	3,121	4,923	57.7	-27.8
통 영	6,863	3,144	4,858	54.5	-29.2
고 성	6,502	3,006	5,564	85.1	-14.4
여 수	7,304	-	4,588	-	-37.2

주 : '-'는 위판실적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것임
자료 : 각 수협

도매가격, 작년보다 15% 이상 낮은 수준

- 11월 도매가격은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5% 이상 낮은 수준이다.
- 시장별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생굴(上品) 도매가격이 전월보다 13.8% 상승한 7,432원이며, 노량진수산시장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가격은 60% 이상 상승하였다.

〈생굴 도매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월별 생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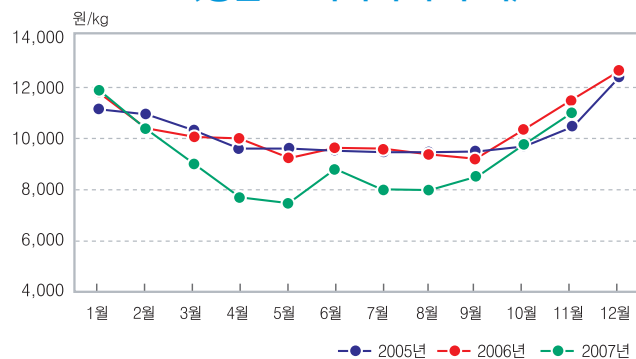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11월	10월	11월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		8,910	6,532	7,432	13.8	-16.6
노량진수산시장		8,065	3,656	6,123	67.5	-24.1
서울시	상품	10,829	4,808	7,853	63.3	-27.5
농수산물공사	중품	8,856	3,884	6,462	66.4	-27.0

주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조사가격, 노량진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2007년 11월은 잠정치)

● 서울·부산지역 소비자가격, 작년보다 낮게 형성

- 지난 8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생굴 소비자가격은 10월보다 10.6% 상승한 kg당 11,046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작년 동월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 지역별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다. 한편 굴 소비가 많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작년 동월보다 20% 가량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생굴 소비자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월별 생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11월	10월	11월			
전 국	11,436	9,988	11,046	10.6	-3.4	
서 울	11,778	8,000	9,217	15.2	-21.7	
부 산	11,000	-	8,813	-	-19.9	
광 주	10,000	10,749	10,900	1.4	9.0	
대 전	8,947	10,000	12,310	23.1	37.6	

주 : '-'는 거래물량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것임(2007년 11월은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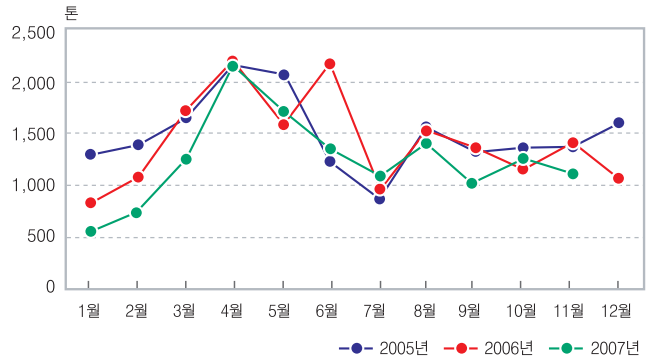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동향

11월 수출량, 전월에 비해 14% 감소

- 11월 굴 수출량은 전월에 비해 13.5% 감소한 1,096톤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22.0% 적은 수준이다.
- 특히 생굴 수출량은 일본 내 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작년 동월에 비해 65.4% 적은 103톤에 불과했다.

〈굴 수출량 추이〉



주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알굴로 환산(마른굴은 5배, 통조림은 2.5배 수율 적용)하였고, 치패는 제외하였음(2007년은 잠정치임)

해외동향

11월 한국산 굴 도매가격, 작년보다 32% 낮은 수준

- 11월에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에서 거래된 한국산 굴 도매가격은 kg당 600엔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32.2%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본산도 kg당 1,068엔으로 작년 동월 대비 9.5%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었다.
- 이처럼 도매가격이 낮은 것은 작년에 발생한 굴 안전성 문제의 여파로 일본 내 굴 소비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의 굴 도매가격〉

(단위 : 엔/kg)

구 분	2006년	2007년	작년 동월 대비(%)
	11월	11월	
한국산	885	600	-32.2
일본산	1,180	1,068	-9.5

주 : 2006년 11월은 확정치, 2007년 11월은 중순까지 가격임

자료 :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city.osaka.jp/sikyo/sikyo.html>)

생산 및 가격전망

12월 출하는 작년과 비슷하고,
산지가격은 약보합세일 듯

12월 출하량,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일 듯

- 12월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에 비해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폐사가 발생했지만 김장철 등 주요 소비기에 출하하려는 경향이 강해 전체적으로는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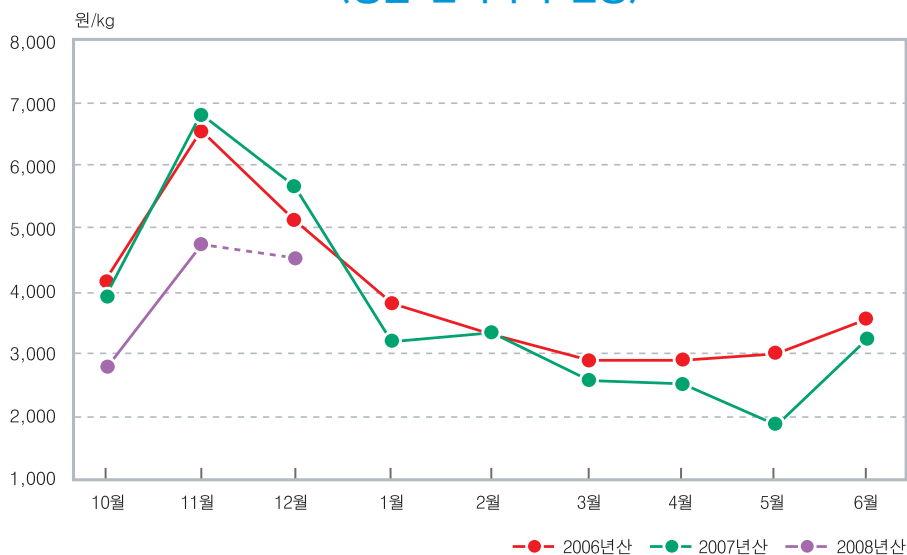
12월 수출량,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할 듯

- 12월은 일본에서 굴 수요가 가장 많은 달로 생굴 수출은 11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중순 이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내 굴 수요 회복이 더디고 자국산 굴 가격이 낮아 수출량은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생굴 산지가격, 약보합세 전망

- 채소값 상승으로 김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따뜻한 날씨 탓에 남부지방에서는 김장철이 12월 들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12월 생굴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굴 산지가격 전망〉



주 : 2007년 12월은 전망치이고, 산지가격은 굴수하식수협 위판가격 기준임

자료 : 굴수하식수협